

곡성중앙초등학교, '아우르기마을공예교실 작품 전시회'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역공동사업 선정 학교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곡성중앙초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하여 곡성읍권역교육공동체 참여단체 협동조합 독방과 연대하여 지역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복지대상 3~4학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사업 '아우르기마을공예교실'은 공예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폼아트, 금속·지끈·비누·레진 공예, 마을입체지도 등 다양한 공예 작품을 배우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오OO 학생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를 할 수 있어서 신기

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전시회까지 하게 되니까 제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특히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5일간 진행된 마을입체지도는 테플릿 PC를 활용하여 곡성군 위성지도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예리한 관찰과 창의력으로 곡성의 관공서, 가게 등을 미니어처로 표현하는데 섬세한 손길이 돋보였다.

협동조합 독방의 대표이며 마을입체지도 만들기를 재능 기부한 임원자 대표는 "학생들의 표현력이 놀라울 뿐이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어서 뿌듯해

요. 마을 발견으로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비누공예 재능 기부로 참여한 박해숙(숙이네점빵) 공예 강사도 "학생들이 나눔으로 실천하는 마음들이 너무 예뻐요. 덕분에 제 자신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전했다.

현재 폼아트 작품은 학생회 게시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제작된 학생들의 작품들은 추석 전까지 전시회가 진행된다. 마을입체지도 만들기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가치와 특색을 발견하고, 비누·레진 공예로 만든 작품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결과들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었다.

곡성=양혜영 기자



보성 예당고,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창의 융합 캠프' 성료



지역 사회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예당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 미래인재과와 전남 미래 교육 재단의 후원으로 2022.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창의 융합 캠프를 지난 3일~ 4일까지 1박 2일간 보성 다비치 콘도에서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총 31가족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청서를 받는 첫날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31팀의 가족들은, 가족들과 함께 배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술, SW를 활용한 STEAM 융합 과학, 이렇게 세 가지 체험을 하였다

예당고등학교는 2017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시작하여, 그동안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우수학교, SW 산출물 경연대회 2년 연속 대상(과학기술부 장관상), 청소년 과학 관련 국제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ISCF'대회에 SW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등 지역 사회 SW와 인공지능 교육을 이끌어 왔고, 이번 캠프는 그러한 성과

를 보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체험에서는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우리 가족 얼굴 인식 시키기'를 학습한 후 엔트리的人工智能 블록을 활용하여 가족 얼굴에 반응하는 잠금장치 만들어 보기를 직접 코딩해 보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간단한 메시지 카드 만들기, 온도계 만들기, 건강을 위한 만보기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체험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술체험 행사에서는 구글 오토드로우, 퀵드로우를 활용한 가족 파우치와 카드 뉴스 만들기,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이용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미술 놀이, 3D 펜을 활용한 드림캐처 만들기를 통해 그동안 알

총 31가족 106명이 참여

고 있었던 미술 체험에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미술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STEAM 활동 과학 체험 행사에서는, SW와 인공지능 선도학교 외에도 STEAM 선도학교를 3년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두이노와 엠블록을 활용하여 3색 LED 조명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SW를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베르누이의 법칙, 마그누스 효과를 실현 공작 활동을 통해 이해하며, 우리 생활 주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님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가져왔고, 서울에서 4년 전 귀농한 어떤 학부모는 서울에서도 이렇게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캠프는 경험해 보지 못했더니, 이렇게 유익한 캠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전라남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채길우 장학관과 최현 장학사는, 보성 지역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이런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은 보성 지역의 교육 발전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환영사를 하였으며, 예당고등학교 정희삼 교장은 앞으로 예당고등학교가 보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 교육,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학부모들과 약속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대, 학생 진로·취업지원 포털시스템 구축

진로탐색·목표설정·취업상담·채용정보 등 취업원스톱 서비스 지원



국립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로취업지원포털(<https://jobs.scnu.ac.kr>)'을 구축하고 최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진로·취업지원포털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오픈 API'를 연동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각종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진로 탐색 결과에 대한 학생별 정보는 Web 환경 기반에서 운영되는 진로취업지원 포털 학생경력관리내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전문상담 등을 포털시스템과 모바일 웹에서 온

라인 신청할 수 있고, 기존 향림취업향상포인트와 연계하여 비교과, 상담 활동에 부여되는 포인트 취득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워크넷 및 교내의 채용정보, 기업정보 등 풍부한 채용정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현장실습, 인턴, 어학 능력,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목표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면 달성 진행 정도를 학생경력관리내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 심상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진로·취업지원포털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탐색 및 취업목표, 경력개발, 희망취업카드 등의 학생 이력을 상담 교직원들이 직접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어 취업 상담 및 맞춤형 취업 지원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용자 중심의 취업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